

# 광양, 이차전지 소재기업 협력방안 모색

### 주순선 부시장·김현철 KTR 원장 포스코퓨처엠 등 2개소 현장 방문 수산화리튬 공장 건립 상황 청취 배터리 성능·안정성 향상 강조도

주순선 광양 부시장과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울촌1산단에 입주한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을 차례로 방문한 주순선 부시장과 김현철 원장은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정과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건립 진

척 상황을 청취하며 광양시와 KTR의 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방문한 포스코퓨처엠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공장이 지난해 11월 종합 준공됐으며,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한다. 또 2024년 5월 준공 목적으로 연 4,500톤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 중이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올 1분기 7,799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올리며 전 분기보다 77.1%가 늘어난 급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스코(82%), 호주 필라사(18%)와 9,200억 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 연 4만5,000톤 생산을 목표로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합작법인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을 방문

했다.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은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료인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등 해외로부터 100% 수입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업을 방문한 주부시장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상호 협력을 당부했고, 김현철 원장은 KTR이 이차전지산업의 소재실증 분야를 연구 중에 있어 포스코그룹과 연계 협력할 부분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순선 부시장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KTR 광양센터 전문인력이 참여해 AI/ML 기반 차세대 배터리 전한 소재실증 등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소재개발이 절실하다”며 “중앙부처에 국비사업 건의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앵커 기업과 연계하고 연관 기업을 유치·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에 본원이 있는 KTR은 전국에 15본부, 65센터, 26팀에 약 1,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컨설팅, 시험검사, 제품 시스템 인증, 해외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공인 시험평가기관이다.

2018년 6월 세풍산업단지 입주한 KTR 광양복합소재지원센터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일환으로 설립됐으며, 기업 위탁 연구개발,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지원과 연간 3,000여 기업에 2만여 건의 개발지원과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성진 기자

##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 회의 지자체 협력 선도모델 도약 다짐

보성군은 최근 보성 북재활에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4개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의 현안 사업과 협의회회 공동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안건은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추진 건의, 지역 대표축제 지원을 비롯해 5가지 안건으로, 특히 공동건의 가결사항에 대해서는 4개 군이 힘을 합쳐 중앙 정부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4개 군을 연계한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 공동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방자치 30년 시대를 맞이해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전국 지자체 협력의 선도적 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8년 득량만과 강진만 청정연안 보존과 공동번영을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보성군수와 보성군의회 의장이 공동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 고흥, 내일 지역발전 전략포럼 거금도 관광산업 과제 등 모색

고흥군이 오는 18일 고흥군 금산면 김일기념체육관에서 '제2의 제주도, 거금도 관광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2차 2023 지역발전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금산면에서 열렸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의 정책제언, '거금도의 관광 발전 방안과 이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지역민, 관련분야 종사자,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토론 주제에 관한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1: 최근 관광에서 섬 관광의 중요성과 발전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정아) ▲주제발표 2: 고흥 거금도 관광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심원섭)을 비롯해 관광기획·축제·지역문화·관광정책·사회적경제 등 관광 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후 포럼에 참석한 주민과 관광업 분야 종사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포럼이 거금도의 관광 발전을 위해 고흥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그려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흥=진중언 기자



보성군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교실' 특수분야 교육생들이 차밭에서 차잎 따기를 통해 힐링 투어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보성, 휴식·치유 숲서 교직원 직무교육

###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교실' 운영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치유센터에서 전군 교사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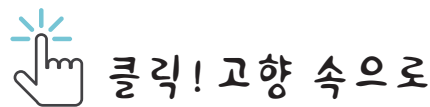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은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교실'이란 주제로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총 180여 명의 교육생을 6기로 나눠 30여 명씩 1박 2일 동안 진행하며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하반기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환경교육(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茶) 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 및 심신 안정 교육 ▲목공예(우드베닝) 체험 ▲죽옥 체험 ▲차와 산림의 만남 ▲차밭 힐링 투어(차잎 따기, 차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생태 자원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며 “기후 위기, 환경 문제에 당면한 우리 미래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생태 환경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 및 대학교 MT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여 개 팀 4,500여 명이 예약했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 광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

광양시는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과 정민교 대영채비추대표이사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광양시는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대영채비추는 20억원 상당을 투

자해 해당 부지에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30기 포함) 약 100여 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직접 생산·판매와 24시간 콜센터 서비스 운영, 정기적인 A/S관리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진 기자



### 고흥, 서울 중랑구와 우호교류 체결

고흥군은 최근 서울 중랑구청에서 중랑구와 상생발전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양 시군의 기관사회단체장·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고흥현 중랑구 고흥군향우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서에는 ▲양 자치단체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문화·체육·관광·경제 등 분야별 교류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진중언 기자



###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지부, 한우 후원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가 가정의달을 맞아 최근 250만원 상당의 한우 69kg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이번이 4년째 후원이다.

이번 후원은 한우농가의 성장과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육농가가 한우를 도축장에 출하할 때 한우 1두당 일정액을 거출해 조성한 한우자조금으로 마련됐다. /여수=곽재영 기자

시는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16개소에 한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만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장은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후원했다”라며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